해상케이블카 타고 여수 밤바다…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여수 10경 중 9경인 여수해양케이블카. 거북선대교 옆에 설치된 케이블카를 타려는 외지인들로 주중·주말, 밤낮 가릴 것 없이 북적인다.

'블루오션' 다도해 <18>

제4부 전남의 섬, 섬사람들

② 여수편 - 돌산도

여수는 섬의 도시다. 신안군에 이어 전남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반도는 소라면·화양면과 돌산읍의 양갈래로 갈라지며 금오도로 이어지는, 마치 양손을 모은 듯한 형태다. 백야도~제도~개도~월호도~화태도~돌산읍으로 이어지는 연륙·연도교가 추진되고 있어 이 양 갈래는 조만간 하나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에는 49개의 유인도(연륙도서 5곳 포함)와 316개의 무인도가 있다. 이들 해안선을 모두 합치면 879.03km에 이른다.

여수 본토와 2개 다리로 연결
몽돌해변·향일암 등 볼거리 많아
"상하동마을 소나무 제 지낼때 대통령이 와도 차에서 내려야"

돌산도는 우리나라에서 9번째로 큰 섬이다. 세상을 구했다는 의미의 세구지마을 등 40여 개의 마을에 돌산도, 무술목, 몽돌해변, 향일암, 방죽포해수욕장, 이충무공 전적비 등 곳곳에 볼거리들이 산재해 있다. 특산품은 그 유명한 '돌산갓'이다. 지난 7월 20일 돌산도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많이 눈에 띈 글자는 '갓'이다. 돌산도의 황토와 굴껍질 가루가 섞인 알카리성 토양에서 자란 갓의 맛은 다른 지역에서는 감히 흉내를 내지 못한다. 돌산갓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약간 매우면서 톡 쏘는 홍갓보다 그렇지 않은 청갓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돌산도는 여수 본토와 2개의 다리로 연륙돼 있다. 1984년 완공된 450m의 사장교 돌산대교와 2012년 개통된 744m의 사장교 거북선대교가 그것이다. 다리는 돌산공원과 연결되는데, 이곳에선 여수 9경인 '여수해양케이블카'를 볼 수 있다. 바다 사이를 왕복하는 케이블카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 왕복 25분에, 밤 10시까지(토요일 11시까지) 운행하기 때문에 '여수 밤바다'를 꽤 오랫동안 하늘에서 볼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아시아에서는 홍콩, 싱가폴, 베트남에 이어 네번째, 국내에서는 최초로 바다를 통과하는 해상케이블카다.

돌산도의 끝자락에 여수 3경인 향일암이 자리하고 있다. 섬의 끝 모양이 동쪽으로 향하는데, 이 지점에 향일암이 서 있다. 금거북이(금오, 金鰲)산의 등에 자리하고 있는 이 암자는 통일신라시대의 원효대사와 인연이 있다. 그가 수도에 정진했다는 좌선대, 읽었다는 경전바위, 거닐었다는 동굴 '해탈문' 등을 볼 수 있다. 몇몇 바위에는 거북이 등껍질 모양처럼 격자가 나 있다. 평일인데도 상당한 인파가 찾을 정도로 유명해진 관광지에 가려면 차 한 대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가파르고 좁은 길을 거쳐가야 한다. 그 양쪽은 상점과 음식점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전히 공사가 한창이다. 차량과 인파와 뒤섞이면서 체증과 불편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지역 공동체가 차량통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일암에서만 볼 수 있는 거북이상. 가족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전국 각지의 불자들이 봉헌했다.

인근에는 낚시로 유명한 율림어촌체험마을, 50년 이상된 해송숲과 몸에 잘 묻지 않은 모래로 알려진 방죽포해수욕장이 있다.

유독 섬에는 신성시되는 오래된 나무가 많다.

돌산읍 우두리 상하동마을에도 400년 이상된 소나무가 있는데, 섣달 그믐날 밤 10시부터 12시와 설날 오전에 제를 지낸다. 제를 지낼 때는 여자와 차량의 접근과 통행이 금지된다. 대통령이 와도 차에서 내려 걸어와야 한다는 것이 마을주민들의 전언이다.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무찌른 전적지인 무술목, 약간 노란색을 띠는 굴로 유명한 안굴전마을도 찾아볼만 하다.

돌산도를 나오면 여수 1경인 오동도가 보인다. 1930년 일제가 방파제 겸 다리를 놓고 구경갈만큼 자태가 대단한 이 섬의 명물은 '해녀'였다. 다리 위에서 소라, 전복, 멍게 등을 팔던 해녀들은 오동도 내 회센터가 들어서면서 사라졌다고 전해진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세계박람회 끝나고 일은 3배 늘었지만 행복한 '여수 사랑꾼'

여수문화관광해설사 김옥선씨

취미로 국악을 하다가 지난 2009년부터 문화관광해설사로 일하고 있다.

25년간 가정주부로 남편과 자식밖에 몰랐던 그녀는 6년간 돌아다니며 여수를 배우고 있다.

김 해설사는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여수가 달라진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음식점, 특산품판매점에서 시장 건어물점까지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관광객들을 이끌고 거문도 갈치축제에 갔다가 4박5일간 거문도에 갇힌 적도 있었다. 김 해설사는 "과거 한 달에 4~5일 정도 일했는데, 요즘은 15일 정도 일하고 있다"며 "여수에 대해 듣고 다시 찾아주는 사람들로 인해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건어물이나 갓김치를 사서 보내달라는 관광객들의 요청도 마다않는 '여수 사랑꾼'이다.